



임실군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과 사전 교육 및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한국 생활 수칙 등을 교육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 개최

임실, 농업 실습 교육 병행·영농철 농가 투입 높은 호응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일손에 큰 도움이 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환영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과 사전 교육을 통해,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맞이하고 인권 침해 예방과 근로자 준수사항 및 한국 생활 수칙 등을 교육했다.

군은 3월 한 달간 먼저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여 명에 대한 실습 교육과 함께 신규 근로자의 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농가 현장 실습을 병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단기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호응도

가 좋은 사업이다.

특히,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의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근로계약 기간은 기본 5개월이며, 농가와 근로자의 합의에 근로계약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향후 재입국 초청도 가능하다. 임실군이 양일 맞이한 1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공공형인 계절근로자 30명, 농가 고용 계절근로자 70여 명이다. 이들은 이번 사전 교육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바로 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임실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첫째

인 2022년 54명에서 2023년 183명, 올해 20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층 규모의 공동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다.

기숙사는 시설 연면적 1,350㎡에 2인 26객실과 휴게실, 공동주방 등을 갖춘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한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기에 노동력을 확보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제62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4월 19일 순창읍 중앙로 일원서

순창군이 지난 27일 순창군민의 화합 대추제인 군민의 날을 앞두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서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김영식 부군수를 주제로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운영에 대한 부서별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식 부군수는 "무엇보다 행사의 성공 여부는 군민들의 참여와 안전관리"라며 "부서별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고, 아무 탈 없이 무사

히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부군수는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예상 문제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행사장 안전 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 달라"며 "군민과 관광객들이 이번 축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올해로 62회째를 맞은 군민의 날 행사는 다음 달 19일 순창읍 중앙로 일원에서 개최되며, 기념식, 군민 화합 음악회, 민속놀이경연대회, 청소년 품목 페스티벌, 청소년 어울마당 등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격년제로 개최되어 온 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 개최되어야 한다는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이번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이번 군민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결속을 다지고 모두가 하나되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가축분뇨 악취 문제 해결 나서

순창군, 650개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투입과 왕겨 총 5295톤 지원

순창군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섰다.

현재 순창군에는 650개의 한우농가가 있으며, 이들 농가에서는 총 2만 8,700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사육으로 인해 하루에만 약 350톤의 축산분뇨가 발생하고 있어, 축산 냄새 저감과 가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자체 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필수적인 수분조절제인 톱밥과 왕겨를 총 5,295톤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분조절제로 쓰이는 왕겨와 톱밥은 분뇨에 섞어 쓸 경우 부숙을 촉진시켜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이번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분조절제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축산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군은 650여 농가에 총 13억 8,000만원의 사업비 중 50%인 6억9,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축산농가에 필요한 톱밥과 왕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자이며, 가축사업 미등록, 미허가·무허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수분조절제인 톱밥, 왕겨 지원은 악취 저감뿐만 아니라 부숙된 퇴비를 통한 농지 환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감소와 가축 질병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내달 1일부터 재개

남원시는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동절기 단축 운행한 남원역에서 시작하는 정령치까지의 지리산 순환버스 운영을 4월 1일부터 재개 하루 6회를 운행할 계획이다.

정령치 순환버스는 주천, 운봉, 인월, 실상사, 뱀사골, 정령치 등 관광객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해 왔으며, 동절기에는 정령치 도로 통행 제한에 따라 하루 3회 달군까지 운행해 왔다.

2019년 첫 운영을 시작한 정령치 순환버스는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17,600여명의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한 경로 집계되었으며, 요금은 1,000원으로 상행선은 오전 7시 20

분 남원역을, 하행선은 오전 8시 30분 정령치에서 출발한다. 주천면, 인월면 방면은 각 3회로 하루 총 6회 운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코레일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

순창군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 및 충청·전라·전북권 코레일 관계자 17명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순창군의 주요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코레일 관계자들에게 순창의 관광 및 체험 장소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강천산 군립공원, 체계산출렁다리, 발효테마파크 등 순창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둘러보며 순창의 매력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강천산은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강천 힐링스파는 방문객들에게 피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연령

대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평가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체계산 출렁다리는 아름답고 웅장한 경치와 스릴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명소라며 참가자들로부터 큰 감탄을 받았고, 발효테마파크는 순창의 발효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탐방할 수 있어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코레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순창을 더욱더 많이 방문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레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순창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임실군이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임실 관광 홍보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200여 개의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이다.

임실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남원·완주와 공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사선대, 성수산 등 임실의 대표 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관에서는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임실N치즈 플랫폼 이벤트 등 참여형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임실 관광책자 및 지도, 홍보 기념품을 배부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임실을 알릴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수지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회의

남원시 수지면(면장 방미자)은 28일, 관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운영에 발골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했다.

대상자의 주거환경은 매우 위생상 불결한 상태로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에 문의하였으나 지원 이력이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올해 전북형 지역보호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운영사업이 있어 주민복지와 희망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의 참여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방미자 면장에게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소규모 수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사업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적극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